

# 타인의 정서 및 행동 추론 시 아동의 개인화된 추론

## Children's Personalized Inferences when Reasoning about Other's Emotion or Behavior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정 하나\*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교수 겸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교수 이순형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Course : Chung, Ha-Na

Professor : Yi, Soon-Hyung

---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investigate children's personalized inferences of character's emotional reactions depending on character's personality trait, emotional situation, children's age and gender, (2) to investigate children's personalized inferences of character's behavioral reactions depending on character's personality trait, emotional situation, children's age and gender, (3) to investigate differences between children's personalized inferences of character's emotional reaction and that of character's behavioral reactions. The subjects were 103 children from three age groups (thirty-four 3-year-olds, thirty-three 5-year-olds and thirty-six 7-year-olds). The statistical methods adopted for the data analysis were frequency, percentile, mean, standard deviation, repeated measure ANOVA and paired t-test. The result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ren's personalized inferences of character's emotional reaction depending on character's personality trait, emotional situation and their ag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ren's personalized inferences of character's behavioral reaction depending on children's age and gend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ersonalized inferences of character's emotional reaction and behavioral reactions.

---

▲주요어(Key Words) : 개인화된 추론(personalized inference), 성격특성(personality trait), 정서상황(emotional situation)

### I. 문제 제기

타인의 정서 및 행동을 추론하는 능력은 아동의 또래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예컨대, 타인의 정서나 행동을 잘 예측하고 이해하는 아동은 또래에게 적절한 반응을 보인다(Denham, Blair, DeMulder, Levitas, Sawyer, Auerbach-Major, & Queenan, 2003). 그러나 사회인지 능력이 부족한 아동은 애매한 상황에 대한 공격적 약호화

및 비공격적 반응양식의 결핍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이 집단 따돌림과 같은 공격적 행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Dodge, 1980).

아동의 타인 정서추론 및 행동추론에 관한 연구는 아동의 단서 사용의 발달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어 왔다. 어린 연령의 아동은 주로 타인의 얼굴표정, 몸짓, 음성과 같은 외적인 단서를 바탕으로 타인의 정서를 판단한다(Boone & Cunningham, 1998). 또한 아동은 스스로 학습한 문화적 스크립트(cultural script)를 근거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석하고 타인의 정서나 행동을 예측하며 설명한다(Gordon,

---

\* 주 저 자 : 정하나 (E-mail : one781113@naver.com)

1989; Lewis, 1989; Russell, 1989). 그러나 때로는 특정 상황에 대한 규범적 정보만으로는 타인의 정서나 행동을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도 개인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러한 개인의 인지적 판단이 그 사람의 정서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동이 타인의 조망을 이해하는 능력은 정확한 타인 정서추론 및 행동추론을 위한 바탕이 되며, 이는 사회적 추론 단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Gnepp & Gould, 1985). 여기서는 아동이 타인의 정서나 행동의 원인에 대한 추론을 할 때 필요한 개인 정보 중 특히, 성격특성 정보를 고려하는 능력인 개인화된 추론 능력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아동은 타인의 긍정적 특성과 부정적 특성을 경험하며, 이러한 성격특성의 종류에 따라 아동은 타인에 대한 추론을 다르게 한다. 이에 대해 아동이 타인을 이해할 때 긍정적 정보보다 부정적 정보에 더 비중을 두고 판단을 한다는 연구결과(Hodge, 1974; Richey, McClelland, & Shimkunas, 1967)도 있는 반면, 긍정적 정보에 특성관련 추론을 더 많이 한다는 결과(Gnepp & Chilamkurti, 1988)도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 결과가 불일치하므로 과제 인물의 성격특성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른 아동의 추론 사용에 대해 보다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은 정서적으로 명확한 상황에서는 문화적 스크립트에 근거하여 타인에 대한 추론을 하지만(Gnepp & Klayman, 1992) 정서적으로 모호한 상황에서는 상황 정보만으로는 타인에 대한 정확한 추론을 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아동은 정서적으로 상황이 모호할 때 타인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부가적인 정보를 탐색한다. 이러한 과정은 아동이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정서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Gnepp & Klayman, 1992). 상황에 따른 아동의 모호성 인지 및 개인 정보 활용에 관한 연구(Gnepp & Klayman, 1992; Gnepp, Mckee, & Domanic, 1987)에 의하면 연령이 증가하면서 아동은 정서추론을 위해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을 더 많이 한다. 이 연구에서는 상황의 종류에 따라 개인 정보를 어느 정도 탐색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아동은 이미 타인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며, 타인에 대한 추론을 해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면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게 된다. 즉, 정서 판단이 모호한 상황일 경우에 아동은 타인의 정서와 행동을 추론할 때 성격특성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에게 먼저 타인의 성격특성 정보를 제공한 후 상황의 종류에 따른 성격특성 정보의 활용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Piaget(1967)에 따르면 아동은 학령기 전후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성숙함에 따라 내적 및 외적 단서를 통합하여 추론하는 능력이 발달한다. 또한 학령기 이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의 개인 정보를 활용한 추론 능력도 증가한다(김희태, 1989; Deutsch, 1974; Gnepp, 1983, 1989b; Gnepp & Chilamkurti, 1988; Gnepp & Gould, 1985; Gnepp et al., 1982; Rothenberg, 1970). 그러나 아동의 추론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가 언어적 유능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학령기 이전의 어린 아동의 추론 능력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Berndt & Heller, 1985). 또한 4세의 나이 어린 유아도 상황이 단순하며 친숙하고 정서 또한 익숙한 경우, 그 상황과 연합된 규범적 정서를 성공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것(Barden, Zelko, Duncan, & Masters, 1980; Borke, 1971, 1973; Gnepp, 1983; Gnepp et al., 1982; Reichenbach & Masters, 1983)을 보았을 때 과제를 쉽게 구성한다면 8세 이하 어린 아동도 성격특성을 활용한 타인 정서 및 행동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측정 도구에 따른 한계를 해결하고 연령에 따른 발달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그림을 이용한 과제 구성을 통해 만 3, 5, 7세 아동의 성격특성을 활용한 타인 정서 및 행동추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의 타인 정서추론과 행동추론에 일련의 연구들(Gnepp, Klayman, & Trabasso, 1982; Gould, 1984)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타인에 대한 추론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일부 연구(Dimitrovsky, 1964; Rothenberg, 1970)에서는 여아에게 사회적 조망 및 공감적 능력을 더 요구하는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성별에 따라 정서추론 능력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가정에서 남아보다 여아에게 정서와 관련한 대화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Cervantes & Callanan, 1998; Dunn, Bretherton, & Munn, 1987; Kuebli, Butler, & Fivush, 1995). 이와 같이 문화적 특성이나 양육 방식에 따라서 성별에 따른 정서 발달에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나라 아동의 경우 성별에 따라 타인 정서추론 및 행동 추론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서와 행동의 근본적인 차이는 정서보다는 행동이 더 의도적이라는 것이다(Gnepp & Chilamkurti, 1988). 귀인 이론에 의하면 타인의 성격특성에 행동의 원인을 귀인하기 위해서는 그 행동이 의도적이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이다(Jones & Davis, 1965). 따라서 아동은 타인의 의도가 내포되어있는지 여부 즉, 타인의 정서와 행동에 대한 추론을 할 때에 개인화된 추론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문제제기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만 3세, 만 5세,

만 7세 아동의 타인의 정서 및 행동에 대한 개인화된 추론의 발달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아동이 타인 정서 및 행동을 추론할 때 개인화된 추론 반응이 과제인물의 성격 특성, 정서상황,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타인의 정서에 대한 추론을 할 때와 행동에 대한 추론을 할 때 개인화된 추론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타인 정서 추론 시 아동의 개인화된 추론 반응은 어떠한가?

- [1-1] 과제인물의 성격특성에 따라 아동의 개인화된 추론 반응의 차이가 있는가?
- [1-2] 정서상황에 따라 아동의 개인화된 추론 반응의 차이가 있는가?
- [1-3] 아동의 연령에 따라 개인화된 추론 반응의 차이가 있는가?
- [1-4] 아동의 성별에 따라 개인화된 추론 반응의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타인 행동 추론 시 아동의 개인화된 추론 반응은 어떠한가?

- [2-1] 과제인물의 성격특성에 따라 아동의 개인화된 추론 반응의 차이가 있는가?

[2-2] 정서상황에 따라 아동의 개인화된 추론 반응의 차이가 있는가?

[2-3] 아동의 연령에 따라 개인화된 추론 반응의 차이가 있는가?

[2-4] 아동의 성별에 따라 개인화된 추론 반응의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타인 정서 추론과 행동 추론 시 아동의 개인화된 추론 반응은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중류층이 거주하는 지역에 위치한 3개 어린이집의 만 3세 유아 34명, 만 5세 유아 33명과, 1개 초등학교에 다니는 만 7세 아동 36명을 연구대상으로 임의 선정하였다. 전체 연구대상은 총 103명이었으며, 그 중 남아가 53명, 여아가 50명이었다. 연구문제 1과 2는 103명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연구문제 3은 만 5세 유아와 만 7세 아동 69명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부모의 직업과 연령으로 조사하였는데,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N=103)
아버지의 직업	전문·기술직	5(4.9)
	사무·관리직	76(73.8)
	판매·서비스직	18(17.5)
	생산·노동직	1(1.0)
	학생	3(2.9)
어머니의 직업	전문·기술직	6(5.8)
	사무·관리직	47(45.6)
	판매·서비스직	8(7.8)
	생산·노동직	1(1.0)
	학생	3(2.9)
	전업주부	38(36.9)
아버지의 연령	31세 ~ 35세	46(44.7)
	36세 ~ 40세	39(37.9)
	41세 ~ 45세	18(17.5)
어머니의 연령	26세 ~ 30세	7(6.8)
	31세 ~ 35세	56(54.4)
	36세 ~ 40세	34(33.0)
	41세 ~ 45세	6(5.8)

## 2. 연구 도구의 구성

### 1) 과제인물의 성격특성 및 정서상황의 범주

이 연구에서는 <표 2>과 같이 과제인물의 성격특성을 '긍정적 성격특성'과 '부정적 성격특성'으로 나누고, 정서상황을 '명확한 상황'과 '모호한 상황'으로 구분하였다. 아동의 타인의 성격특성 활용에 관해 연구한 Gnepp과 Chilamkurti(1988)는 성격특성을 '자상한, 재미있는, 정직한, 장난이 심한, 수줍음이 많은, 이기적인'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박경애(1992)가 Gnepp과 Chilamkurti(1988)의 도구를 사용하였는데 예비조사 결과 '장난이 심한' 특성과 '수줍음이 많은' 특성은 다른 특성에 비해 반응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동에게 명료한 인식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연구에서 제외하였고 '도움을 주는, 정직한, 심술궂은, 이기적인' 특성으로 구분하여 아동의 타인 정서추론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예비조사 결과 만 3세 연령의 아동은 '정직한'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으므로 '활발한' 성격특성으로 대체하여 면접을 해 보았다. 그 결과 아동은 '활발한' 성격특성을 '씩씩하다'고 표현하였을 때 잘 이해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유아의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태도를 장려하는 분위기를 고려하여 '활발한' 성격특성을 긍정적인 성격특성으로 범주화하여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 아동에게 과제인물의 성격특성을 설명할 때 Gnepp과 Chilamkurti(1988), 박경애(1992)는 세 가지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는 주인공의 행동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예비조사 결과 성격특성을 나타내는 상황을 두 가지만 제시하여도 조사 대상 아동이 과제인물의 특성을 이해하였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과제인물의 성격특성을 긍정적 성격특성(활발한, 자상한)과 부정적 성격특성(이기적인, 짓궂은)에 대해 각각 2 가지의 상황을 제시하였다.

타인 정서에 대한 아동의 추론을 살펴보기 위한 정서상황

범주는 Gnepp, Mckee와 Domanic(1987), Gnepp과 Klayman(1992) 등을 참고하여 크게 '명확한 상황'과 '모호한 상황'으로 구분했다. 명확한 상황으로 기쁨 정서를 선정하였다. 기쁨 정서를 선정한 이유는 만 3세의 아동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Borke, 1971). 만약 명확한 상황이 기쁨을 유발하는 명확한 상황이나 슬픔을 유발하는 명확한 상황 등으로 구분된다면 정서의 종류에 따른 효과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명확한 상황의 정의가 '한 가지 정서를 명확하게 유발하는 상황'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명확한 상황을 '엄마에게 선물을 받는 기쁜 상황'으로 선정하였다. 모호한 상황의 경우에는 선행연구를 참고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도록 상황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엄마가 노래를 불러 보라고 하는 상황', '친구가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 '사탕을 나누어 먹으라고 하는 상황', '친구가 넘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상황'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의 이야기 상황은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 5인에 의해 명확한 상황과 모호한 상황을 구분하도록 하고 일치한 상황만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내용타당도가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주의집중 시간을 고려하여 약 10~15분 정도의 면접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어린 연령의 아동이 15분 이내에 과제를 수행할 있도록 총 8가지 상황을 선정하였다. 과제인물의 성별은 연구대상 아동의 성별과 일치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어린 아동은 표정을 보고 정서를 판단(Gnepp, 1983)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과제인물의 표정단서를 제외하여 아동이 상황단서 및 성격특성 단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았다.

### 2) 개인화된 추론 반응

개인화된 추론 반응은 제시된 과제인물의 성격특성을 추론의 근거로 언급하는 것을 의미한다(Gnepp & Chilamkurti, 1988). 아동의 응답 중 개인화된 추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구분하였다. 개인

<표 2> 연구 도구의 구성

성격특성의 범주	하위 범주	상황 종류	점수
긍정적	활발한	명확한 상황	1점
		모호한 상황	1점
	자상한	명확한 상황	1점
		모호한 상황	1점
부정적	이기적인	명확한 상황	1점
		모호한 상황	1점
	짓궂은	명확한 상황	1점
		모호한 상황	1점

화된 추론 반응 점수의 총점의 범위는 0에서 8점 이다. 아동학 전공자 2인에 의해 평정된 아동의 추론 점수의 신뢰도는 .89로 양호한 편이었으며, 두 평정자간에 평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녹음 자료를 근거로 두 사람이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 3. 연구 절차

#### 1) 예비조사

조사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이야기 상황과 그에 따른 질문의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2회 실시하였다. 1차 예비조사는 만 3세 유아 3명을 대상으로 2003년 8월 11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Berndt & Heller, 1985; Feldman & Ruble, 1981)에 따르면 어린 아동에게 적합한 도구를 사용할 경우 나이 어린 아동도 성격특성을 활용한 응답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야기 내용 구성을 만 3세 유아의 이해 수준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였다. 인형을 사용하여 '자상한, 정직한, 짓궂은, 이기적인' 특성으로 구성된 이야기를 설명하였다. 성격특성을 나타내는 상황을 설명한 후 이해 질문과 특성 확인 질문을 하였다. 명확한 혹은 모호한 상황을 설명하고 그 상황에 적합한 과제인물의 정서 및 행동을 선택하고 추론하도록 하였다. 1차 예비 조사 결과 다른 특성에 비해 '정직한'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다른 특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 반면, 이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거의 대부분이 정답이어서 특별히 상황에 대한 이해 질문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연구자가 인형을 사용하여 조사를 수행하려면 인형 조작, 녹음기 조작, 기록 등을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림과제로 이야기를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차 예비조사는 2003년 8월 22일 만 3세 및 5세 유아 각각 2명, 8월 25일 만 7세 아동 2명을 대상으로 그림도구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정직한' 성격특성을 '활발한' 성격특성으로 대체하여 '활발한', '자상한', '이기적인', '짓궂은'을 성격특성으로 제시하였다. 이 때 이해 질문은 제외하고 이야기 상황마다 특성 확인 질문, 정서 선택 질문, 정서 추론 질문, 행동 선택 질문, 행동 추론 질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연령의 아동이 과제인물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

#### 2) 본조사

본조사는 2003년 8월 30일부터 9월 9일 사이에 연구자가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자료실에서 연구자와 대학원 아동학 과정에 있는 연구보조원 3인이 일대일 면접을 통하여 과

제인물의 성격특성과 정서상황의 종류에 따른 아동의 타인 정서 추론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과정은 먼저 아동에게 기쁨, 슬픔, 화남, 무서움을 나타내는 얼굴 표정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아동에게 과제인물의 성격특성을 나타내는 두 가지 상황(예: 정희는 길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씩씩하게 달려가서 인사를 하는 친구예요. 정희는 놀이터에서 모르는 친구들에게 먼저 가서 같이 놀자고 말하는 친구예요.)과 현재의 정서상황(명확한 상황 예시: 어느 날 엄마가 정희에게 예쁜 토끼 인형을 사주셨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놀라고 하셨어요. 모호한 상황 예시: 어느 날 엄마가 "수정아, 친구들한테 노래 좀 불러줄래?"라고 물었어요.)을 제시한다. 이야기의 순서는 무작위로 제시하여 순서에 의한 효과를 통제하였다. 아동의 특성 이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성격특성을 나타내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한 특성 확인 질문(예: 이 친구는 씩씩한 친구예요? 부끄러워하는 친구예요?)을 하였다. 명확한 혹은 모호한 상황을 제시한 후 과제인물의 정서를 선택(예: 이 중에 어떤 얼굴 표정을 하고 있을까요?)하도록 하고 정서추론 질문(예: 왜 (화남) 얼굴 표정을 하고 있을까요?)을 하였다. 다음으로 과제인물의 행동을 선택(예: 사탕을 나누어 줄까요? 혼자 먹을까요?)하도록 하고 행동추론 질문(예: 왜 (나누어) 줄까요?)을 하였다.

과제 소요 시간은 만 5세 유아와 만 7세 아동은 약 10분-15분이었고 만 3세 유아의 경우 약 20분 정도이었다. 8가지 이야기에 따른 질문은 동일하였으며 질문에 대한 아동의 응답은 녹음하여 전사한 후 분석하였다.

### 4.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으며, 통계방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반복측정 변량분석과 독립표본 t 검증이 이용되었다. 먼저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백분율과 빈도 분포를 살펴보고, 타인 정서추론과 행동추론 시 개인화된 추론 반응의 전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아동이 타인의 정서 추론 시 과제인물의 성격특성과 정서상황 및 아동의 연령, 성별에 따른 개인화된 추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아동이 타인의 행동 추론 시 과제인물의 성격특성과 정서상황 및 아동의 연령, 성별에 따른 개인화된 추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타인 정서 추론과 행동 추론 시 아동의 개인화된 추론 반응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쌍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개인화된 추론 반응의 전반적 경향

타인의 정서 및 행동에 대한 추론 시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개인화된 정서추론 반응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 각 하위 영역별 점수는 <표 3>과 같다.

2) 과제인물의 성격특성과 정서상황에 따른 개인화된 추론 반응의 차이(타인 정서추론 시)

타인의 정서에 대한 추론 시, 과제인물의 성격특성, 정서상황,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아동의 개인화된 추론 반응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연령과 성별을 피험자간 요인으로, 과제인물의 성격특성과 정서상황을 피험자내 요인으로 하는 반복 측정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이 아동의 개인화된 추론 반응 점수에서

과제인물의 성격특성, 정서상황, 연령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인물의 성격특성에 따른 주효과를 살펴보면, 긍정적 성격특성이 제시된 경우의 개인화된 추론 반응 점수(M=2.00)와 부정적 성격특성이 제시된 경우의 개인화된 추론 반응 점수(M=2.48)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11.47, df=1, 101, p<.001). 즉, 아동이 타인의 정서에 대한 추론을 할 때 타인의 긍정적 성격특성보다는 부정적 성격특성에 더 비중을 두고 판단을 한다.

정서상황에 따른 주효과를 살펴보면, 명확한 상황에서 개인화된 추론 반응 점수(M=.92)와 모호한 상황에서 반응 점수(M=1.34)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7.09, df=1, 101, p<.001).

연령에 따른 주효과를 살펴보면, 아동의 개인화된 추론 반응(F=30.04, df=1, 101, p<.001)이 만3세(M=0.00), 만5세(M=2.32), 만7세 아동(M=4.08)의 추론 점수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증 결과, 만 3세 유

<표 3> 성격특성, 정서상황,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아동의 개인화된 추론 반응 점수

범주 구분	성격특성	정서상황	연령			성별		합(N=103) M(SD)
			3세(n=34)	5세(n=33)	7세(n=36)	남(n=53)	여(n=50)	
			M(SD)	M(SD)	M(SD)	M(SD)	M(SD)	
정서추론 시 개인화된 추론 반응	전체	명확	.00(.00)	1.00(.63)	1.66(.74)	.84(.67)	1.00(.64)	.92(.65)
		모호	.00(.29)	1.34(.70)	2.42(.70)	1.22(.74)	1.44(.76)	1.34(.75)
		총점	.00(.15)	2.32(.57)	4.08(.69)	2.06(.67)	2.44(.65)	2.24(.66)
	긍정적	명확	.00(.00)	.78(.61)	1.56(.80)	.84(.72)	.76(.60)	.80(.66)
		모호	.00(.24)	1.34(.78)	2.06(.81)	1.06(.72)	1.32(.82)	1.18(.77)
		소계	.00(.12)	2.12(.54)	3.60(.74)	1.88(.66)	2.08(.64)	2.00(.65)
	부정적	명확	.00(.17)	1.22(.79)	1.78(.85)	.82(.72)	1.22(.81)	1.02(.77)
		모호	.36(.41)	1.34(.82)	2.78(.73)	1.40(.87)	1.56(.84)	1.48(.85)
		소계	.00(.22)	2.56(.66)	4.56(.72)	2.28(.73)	2.80(.72)	2.48(.73)
전체	명확	.00(.23)	1.88(.69)	2.58(.77)	1.50(.79)	1.62(.81)	1.56(.79)	
	모호	.26(.33)	2.10(.68)	2.50(.82)	1.38(.74)	1.90(.81)	1.64(.78)	
	합계	.44(.25)	3.96(.62)	5.08(.72)	2.88(.73)	3.52(.77)	3.20(.75)	
행동추론 시 개인화된 추론 반응	긍정적	명확	.00(.00)	1.94(.88)	2.72(.83)	1.50(.90)	1.64(.92)	1.58(.90)
		모호	.00(.39)	2.00(.75)	2.38(.92)	1.20(.79)	1.84(.91)	1.54(.86)
		소계	.00(.19)	3.92(.70)	5.12(.81)	2.70(.80)	3.52(.84)	3.12(.82)
	부정적	명확	.36(.46)	1.82(.72)	2.44(.83)	1.50(.78)	1.60(.86)	1.56(.82)
		모호	.36(.46)	2.18(.84)	2.62(.75)	1.54(.85)	1.92(.86)	1.72(.85)
		소계	.72(.37)	4.00(.66)	5.04(.74)	3.04(.75)	3.52(.79)	3.28(.77)

&lt;표 4&gt; 타인 정서추론 시 성격특성, 정서상황,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아동의 개인화된 추론 반응 변량 분석

범주구분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개인화된 추론 반응	피험자간	연령	67.11	2	33.56	30.04***
		성별	2.37	1	2.37	2.12
		연령×성별	.16	2	.00	.07
		오차	108.37	97	1.18	
	피험자내	특성	1.80	1	1.80	11.47***
		특성×연령	.79	2	.40	2.54
		특성×성별	.27	1	.27	1.74
		특성×연령×성별	.33	2	.16	1.05
		오차	15.19	97	.16	
		상황	4.18	1	4.18	17.09***
		상황×연령	1.62	2	.81	3.31*
		상황×성별	.00	1	.00	.19
		상황×연령×성별	.32	2	.16	.66
		오차	23.73	97	.25	
특성×상황	.00	1	.00	.29		
특성×상황×연령	.91	2	.45	2.41		
특성×상황×성별	.51	1	.51	2.73		
특성×상황×연령×성별	.58	2	.29	1.53		
오차	18.24	97	.19			

\* p&lt;.05, \*\*\* p&lt;.001

아와 만 7세 의 경우 개인화된 추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만 5세 유아와 만 7세 아동의 경우 개인화된 추론 반응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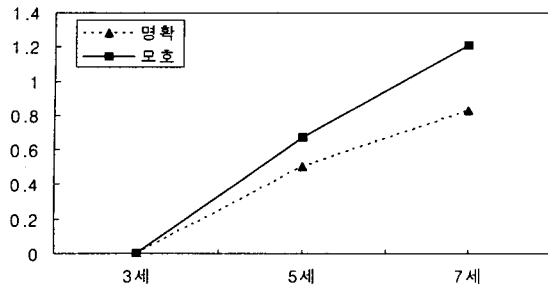
한편 아동의 개인화된 추론 반응에서 정서상황과 연령 간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F=3.31, df=1, 101, p<.05). <표 5>에서 만 3세 유아의 경우를 살펴보면, 정서상황의 종류에 관계없이 개인화된 추론 반응 점수는 .00점이었다. 만 5세 유아의 경우를 살펴보면, 명확한 상황에서 평균 점수는 1.00점, 모호한 상황에서는 1.34점이었다. 만

7세 아동의 경우 명확한 상황에서 평균 점수는 1.66점이었고 모호한 상황에서는 2.42점이었다. 만 7세 아동의 경우 정서상황의 종류에 따라 개인화된 추론 반응 점수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t=-5.35, df=35, p<.001). 반면, 만 3세 유아와 만 5세 유아의 경우 정서상황의 종류에 따른 개인화된 추론 반응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1>을 보면, 연령이 증가하면서 정서상황에 따른 개인화된 추론 점수 차이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lt;표 5&gt; 아동의 개인화된 추론 반응 단순 주효과 분석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3세	명확	34	.00	-1.41
	모호	34	.29	
5세	명확	33	1.00	-1.41
	모호	33	1.34	
7세	명확	36	1.66	-5.35***
	모호	36	2.42	

\*\*\* p&lt;.001



<그림 1> 아동의 개인화된 추론 반응에서 정서상황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타인 정서추론 시)

### 3) 과제인물의 성격특성과 정서상황에 따른 개인화된 추론 반응의 차이(타인 행동추론 시)

타인에 대한 행동 추론 시, 아동의 과제인물의 성격특성, 정서상황,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아동의 개인화된 추론 반응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연령과 성별을 피험자간 요인으로, 과제인물의 성격특성과 정서상황을 피험자내 요인으로 하는 반복 측정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이 아동의 개인화된 추론 반응 점수에서 연령과 성별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과제인물의 성격특성과 정서상황에 따른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에 따른 주효과를 살펴보면, 만 3세( $M=0.44$ ), 만 5세( $M=3.96$ ), 만 7세( $M=5.08$ ) 아동의 개인화된 추론 반응( $F=40.43$ ,  $df=$ , 100,  $p<.001$ )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타인의 행동을 추론할 때 그 사람의 과거 성격특성을 고려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성별에 따른 주효과를 살펴보면, 남아( $M=2.88$ )와 여아( $M=3.52$ )의 개인화된 추론 반응 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F=4.22$ ,  $df=1$ , 101,  $p<.05$ ). 즉, 남아보다 여아가 타인의 행동에 대한 추론을 할 때 개인화된 추론 반응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개인화된 추론 반응에서 정서상황과 성별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F=5.02$ ,  $df=1$ , 101,  $p<.05$ ). <표 7>에서 남아의 경우를 살펴보면, 명확한 상황에서 개인화된 추론 반응 점수는 1.50점이었고 모호한 상황에서 점수는 1.38점이었다. 반면 여아의 경우 명확한 상황에서 점수가 1.62점이었고 모호한 상황에서 추론 반응 점수가 1.90점이었다. 여아의 경우 정서상황의 종류에 따라 개인화된 추론 반응 점수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t=2.14$ ,  $df=4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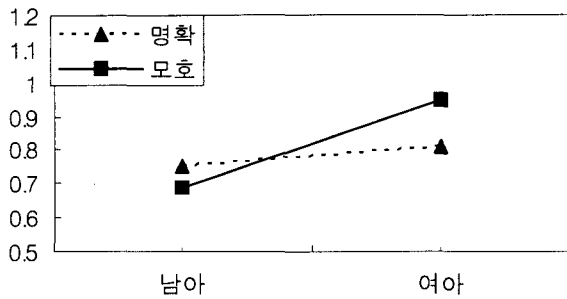
<표 6> 타인 행동추론 시 성격특성, 정서상황,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아동의 개인화된 추론 반응 변량분석

범주구분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피험자간	연령	103.06	2	51.53	40.43***	
	성별	5.38	1	5.38	4.22*	
	연령×성별	1.64	2	.82	.65	
	오차	123.62	97	1.27		
	개인화된 추론 반응	특성	.16	1	.16	.68
특성×연령		.44	2	.22	.90	
특성×성별		.23	1	.23	.93	
특성×연령×성별		.37	2	.19	.77	
오차		23.54	97	.24		
피험자내		상황	.20	1	.20	.96
		상황×연령	.30	2	.15	.73
		상황×성별	1.02	1	1.02	5.02*
		상황×연령×성별	.48	2	.24	1.18
		오차	19.72	97	.20	
		특성×상황	.29	1	.29	1.22
		특성×상황×연령	.48	2	.24	1.02
		특성×상황×성별	.00	1	.00	.33
		특성×상황×연령×성별	.13	2	.00	.28
		오차	22.72	97	.23	

\*  $p<.05$ , \*\*\*  $p<.001$



p<.05). 반면, 남아의 경우 정서상황의 종류에 따른 개인화된 추론 반응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2> 아동의 개인화된 추론 반응에서 정서상황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타인 행동추론 시)

<표 7> 아동의 개인화된 추론 반응 단순 주효과 분석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t	
남아	명확	53	1.50	.79	1.10
	모호	53	1.38	.74	
여아	명확	50	1.62	.81	-2.14*
	모호	50	1.90	.81	

\*p<.05

4) 타인에 대한 정서 및 행동 추론 시 개인화된 추론 반응의 차이

타인에 대한 정서 및 행동 추론 시 아동의 개인화된 추론 반응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쌍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정서추론 시 개인화된 추론 반응이 3.25점, 행동추론 시 개인화된 추론반응은 평균 4.55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4.44, p<.001).

<표 8> 타인의 정서 및 행동 추론 시 아동의 개인화된 추론 반응의 차이

		M(SD)
개인화된 추론 반응	정서추론 시	3.25(.63)
	행동추론 시	4.55(.67)
	t값	-4.44***

\*\*\* p<.001

I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타인의 정서 및 행동에 대한 추론 시 과제인물의 성격특성, 정서상황, 아동의 연령에 따른 아동의 개인화된 추론을 살펴보고자 만 3세, 만 5세, 만 7세 아동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아동의 추론반응을 그림과제로 측정하여 수집된 자료를 통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타인의 정서에 대한 추론 시 아동의 개인화된 추론은 과제인물의 성격특성이 긍정적인 경우와 부정적인 경우에 따라 다르다. 즉, 아동이 타인의 정서에 대한 추론을 할 때 타인의 긍정적 성격특성보다는 부정적 성격특성에 더 비중을 두고 판단을 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은 주인공의 과거 경험이나 행동이 부정적인 경우에 그 정보를 더 인상 깊게 받아들이고 활용해서 추론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최근 아동의 기억능력을 측정한 연구(우현경, 2005)에서 아동은 긍정적 정서상황을 경험했을 때보다 부정적 정서상황을 경험했을 경우 자유 회상에서 더 높은 기억 정확성을 보였다. 이처럼 부정적 정서는 유아의 정확한 회상을 촉진하기 때문에(Goodman, Hirschman, Hepps, & Rudy, 1991) 본 연구에서도 부정적 성격특성이 제시되었을 때 아동이 그 정보를 선택하여 추론하였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둘째, 아동은 정서상황이 명확한 경우와 모호한 경우에 따라 정서추론을 다르게 한다. 즉, 아동은 정서적으로 모호한 상황에서는 개인화된 추론을 더 많이 하였다. 이는 아동은 정서적으로 모호한 상황에서는 개인의 조망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성격특성과 같은 개인 정보를 탐색하였기 때문에 개인화된 추론 반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서 상황에 따른 개인화된 추론 점수 차이가 증가하였다. 이는 아동이 과제인물의 정서를 판단하기 위해 특정한 단서를 활용하는 능력 즉, 인지적 단서 활용 능력이 만 6세 연령의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볼 때(Lagattuta, Wellman, & Flavell, 1997) 마찬가지로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서적으로 모호한 상황에서 과제인물의 개인정보를 더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은 만 5세와 만 7세 사이에 타인 정서를 판단하기 위해 정서상황의 명확성 여부를 고려하여 상황정보와 개인정보를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셋째, 나이가 어린 유아는 나이가 많은 아동과 타인에 대해 추론하는 방식이 다르다. 즉, 타인의 정서 및 행동 추론 시 만 3세 유아의 경우 개인화된 추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만 5세 유아와 만 7세 아동의 경우 개

인화된 추론 반응을 보였다. 이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추론 능력이 발달한다는 앞서 제시한 기존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이러한 발달이 만 5세를 전후로 급격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Livesley & Bromley, 1973; Peevers & Secord, 1973)에서 제시한 만 8세 연령보다 어리다. 이는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 과제를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넷째, 타인의 행동에 대한 추론 시 여아는 남아보다 개인화된 추론 반응을 더 보인다. 이는 아동의 타인 행동추론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Gnepp & Chlamkurti, 1988; Heller & Berndt, 1981; Peevers & Secord, 1973)와 불일치한다. 이 연구의 도구는 아동이 주인공의 현재 행동을 단서로 활용하여 주어진 성격특성 정보에 따라 추론하는 지를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런데 이처럼 특성에 근거한 추론은 이야기를 이해하는 언어적 능력과 일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성 묘사 능력이 여아의 경우 더 뛰어나며 정서 관련 대화에서도 여아는 인과적 표현을 더 사용하므로(Livesley & Bromley, 1973), 성별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다섯째, 타인에 대한 정서 및 행동 추론 시 아동의 개인화된 추론 반응이 차이 나타났다. 이는 Gnepp과 Chillamkurti(1988)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아동이 타인의 정서에 대한 추론을 할 때보다 행동에 대한 추론을 할 때 개인 성격특성 정보를 더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이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생각, 느낌, 정서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특성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미래 행동을 유추하는 것을 더 쉽게 느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 아동은 동일한 상황에서도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추론하고, 동일한 인물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추론을 다르게 함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아동은 타인의 정서를 추론할 때 타인의 부정적 성격특성에 비중을 두고 판단하며 모호한 상황에서 개인화된 추론 반응이 더 높게 나타남을 살펴 볼 수 있었다. 특히 만 5세 유아는 만 3세 유아와는 달리 정서추론 수준이 높게 나타나서 만 5세 연령을 기점으로 발달적 차이가 크게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동은 타인의 정서에 대한 추론을 할 때보다 행동에 대한 추론을 할 때 개인화된 추론 반응을 더 보였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의의를 지닌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아동이 타인에 대한 추론을 할 때 과제인물의 성격특성과 정서상황을 동시에 고려하여 개인화된

추론 반응을 어떻게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타인의 성격특성을 활용한 추론 연구는 대부분 만 6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만 3세, 만 5세, 만 7세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선정해 유아기부터 아동기로 전이하는 시기의 아동의 타인 정서추론의 초기 발달 경향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타인에 대한 아동의 추론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도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만 3세 연령의 아동의 추론 능력과 관련해 언어 능력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결과는 특히 나이 어린 아동의 정서추론 연구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아동의 타인에 대한 추론 시 보다 복합적인 단서 사용과 관련된 후속 연구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을 높이 살 수 있다.

□ 접수일 : 2005년 11월 15일

□ 심사일 : 2005년 12월 14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04월 18일

#### 【참 고 문 헌】

- 김희태(1989). 아동의 타인 감정 추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경애(1992). 특성정보가 타인의 행동, 정서 예측능력에 주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renboim, C.(1977). Developmental Changes in the interpersonal cognitive system from middle childhood to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48, 1467-1474.
- Berndt, T. J. & Heller, K. A.(1985). Measuring children's personality attributions: Responses to open-ended questions versus trait ratings and predictions of future behavior. In S. R. Yussen (Eds.), *The growth of reflection in children* (pp. 37-60). Orlando, FL: Academic Press.
- Boone, R. T. & Cunningham, J. G.(1998). Children's decoding of emotion in expressive body movement: The development of cue attune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4, 1007-1016.
- Borke, H.(1971). International perception of young children: egocentrism or empathy? *Developmental Psychology*, 5, 263-269.
- Byrnes, J. P. & Beilin, H.(1991). The cognitive basis of uncertainty. *Human Development*, 34, 189-203.

- Chandler, M. & Greenspan, S.(1972). Ersatz egocentrism: A reply to H. Borke. *Developmental Psychology*, 7, 104-106.
- Denham, S. A.(1998). *Emotional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New York: Guilford Press.
- \_\_\_\_\_, Blair, K. A., DeMulder, E., Levitas, J., Sawyer, K., Auerbach-Major, S. & Queenan, P. (2003). Preschool emotional competence: Pathway to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74, 238-256.
- Deutsch, F.(1974). Female preschoolers' perception of affective response and interpersonal behavior in videotaped episodes. *Developmental Psychology*, 10, 733-740.
- Dodge, K. A.(1980). Social cognition and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51, 162-170.
- Feldman, N. S., & Ruble, D. N.(1981). The development of person perception: Cognitive and social factors. In S. S. Brehem, S. M. Kassin, & F. X. Gibbons (Eds.), *Developmental social psychology: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nepp, J.(1983). Children's social sensitivity: inferring emotions from conflicting cues. *Developmental Psychology*, 19, 805-814.
- \_\_\_\_\_(1989). Children's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o understand other people's feelings. In C. Saarni & P. Harris (Eds.),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 Chilamkurti, C.(1988). Children's use of personality attributions to predict other people's emotional and behavioral reactions. *Child development*, 59, 743-754.
- \_\_\_\_\_ & Gould, M. E.(1985). The development of personalized inferences: Understanding other people's emotional reactions in light of their prior experiences. *Child Development*, 56, 1455-1464.
- \_\_\_\_\_ & Klayman J.(1992). Recognition of uncertainty in emotional inferences: Reasoning about emotionally equivocal situ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145-158.
- \_\_\_\_\_ & Trabasso, T.(1982). A hierarchy of information sources for inferring emotional reac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33, 111-123.
- \_\_\_\_\_, Mckee, E., & Domanic, J. A. (1987). Children's use of situational information: Understanding emotionally equivocal situ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3, 114-123.
- Gordon, S. L.(1989).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s emotions: Emotional culture, competence, and exposure. In C. Saarni & P. L. Harris (Eds.),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pp. 319-349).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odman, G. S., Hirschman, J. E., Hepps, D. & Rudy, L.(1991). *Children's memory for stressful events*. *Merrill-Palmer Quarterly*, 37(1), 109-157.
- Gove, F. L. & Keating, D. P.(1979). Empathic role-taking precursors. *Developmental Psychology*, 15, 594-600.
- Harris, P. L., Donnelly, K., Guz, G. R. & Pitt-Watson, R.(1986).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distinctions between real and apparent emotion. *Child Development*, 57, 895-909.
- Hodge, B. H.(1974). Effect of valence on relative weighting in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0, 378-381.
- Hoffner, C., & Badzinski, D. M.(1989). Children's integration of facial and situational cues to emotion. *Child Development*, 60, 411-422.
- Lagattuta, K. H., Wellman, H. M. & Flavell, J. H.(1997). Preschoolers' understanding of the link between thinking and feeling: Cognitive cuing and emotional change. *Child Development*, 68(6), 1081-1104.
- Lewis, M.(1989). Cultural differences in children's knowledge of emotional scripts. In C. Saarni & P. L. Harris (Eds.).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pp. 350-373).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erner, J.(1999). *Understanding the representational mind*. London: MIT Press.
- Rholes, W. S. & Ruble, D. N.(1984). Children's understanding of dispositional characteristics of others. *Child Development*, 55, 550-560.
- \_\_\_\_\_(1986). Children's impressions of other persons: the effects of temporal separation of behavioral information. *Child Development*, 57, 872-878.
- Richey, M. H., McClelland, L. & Shimkunas, A.

M.(1967). Relative influ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information impression formation and persist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 322-327.

Rothenberg, B. B.(1970). Children's social sensitivity and the relationship to interpersonal competence, intrapersonal comfort and intellectual level. *Developmental Psychology*, 2, 335-350.

Russell, J. A.(1989). Culture, scripts,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In C. Saarni & P. L. Harris (Eds.).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pp. 293-318).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